

아티스트 엠마 하트



엠마 하트 Emma Hart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2016년에는 막스마라 여성 미술상, 2015년에는 폴 햄린 재단상 시각예술 부문을 수상했다. 엠마 하트는 언어적, 비언어적 기호에 내재된 계급사회와 심리 상태에 대한 탐구를 세라믹을 사용한 조각 작품으로 표현한다.

말은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데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억양, 화법, 목소리는 상대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성격인지 짐작해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영국 노동자 계층 출신인 작가 엠마 하트에게 이러한 언어적 습관은 자신의 배경을 들킬 수도 있다는 염려와 공포감을 불러오는 요소다. 중산층 이상이 주류인 영국 예술계 안에서 작가는 자신의 언어, 비언어적 행동 양식을 의식하게 되었고, 이는 본인이 가짜라는 생각, 가짜라는 걸 들킬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자아분열로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자전적 경험을 모순적이게도 경쾌한 색감의 세라믹 조각에 담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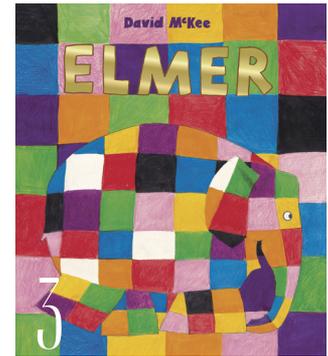
엠마 하트의 첫 한국 개인전 <Big Mouth>가 1월 23일까지 바라캣 컨템포러리에서 열린다. 떠버리를 뜻하는 전시 제목은 이번 전시 주요 작품의 이름이기도 하다. 작가는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 곳에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의 억양을 숨기려 허풍을 떠는 모습이 떠버리 같다고 말한다. 언어적, 비언어적 기호는 소통을 위해 꼭 필요한 도구지만, 본질은 무시된 채 기호에 의해서만 평가되는 현상에 대한 관찰이 작품 속에 담겨있다.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보다 다채롭고 생기 있는 색감을 뽐내고 있는 작품들이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이유다.



BIG MOUTH 블랙과 화이트 컬러의 석기로 완성한 18개의 표적이 벽에 걸려 있다. 활쏘기, 사격, 다트 게임에 사용하는 다양한 디자인의 표적을 번주했는데 이는 사람의 표정을 은유한다. 주목받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음파를 내보내는 듯한 떠버리의 얼굴은 타인에게 평가의 표적이 된다.

2

ADNAM 물건을 고르는 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항상 같은 브랜드를 고수하는데, 텔레비전 채널은 BBC만 보고 맥주는 영국 사우스윌드에서 생산하는 아드남의 맥주만 고른다. 작가는 작업 중이거나 휴식을 취할 때나 상관없이 매일 오후 5시엔 맥주를 마신다.



DAVID MCKEE 딸을 키우는 엄마인 엠마 하트는 어떤 장르의 책을 좋아하느냐는 질문에 어린 딸을 위해 동화책만 읽는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천재적 발상으로 상상력을 자극하는 작가 데이비드 매키의 삽화와 이야기를 좋아한다.



DARTMOOR 작업과 육아에서 탈출할 수 있다면, 엠마 하트는 곧바로 영국 데번에 위치한 다트머어행 기차에 오를 테다. 황무지와 강이 어우러진 풍경이 아름다운 장소다. 작가는 이곳에서 자유로운 새를 관찰하고 싶다고 말한다. 어디로 날아갈지, 어떻게 비행할지 정해져 있지 않은 자유로운 새들을 관찰하고 있노라면 어딘가 모를 안도감이 느껴질 것이라고.